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영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7:18-23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실족하지 않는 길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7월 14일	7월 21일
최빅토리아	강민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예대시)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두 행렬의 만남

본문 : 눅7:11-17

기독교 서점에 가 보면 가장 많은 주제가 바로 죽음과 고난에 대한 주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로 풀지 못하는 숙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절대로 풀지 못하는 이 고난과 죽음의 한계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은 그 뜻이 기쁨, 쾌락,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나인성에는 언제나 축제가 벌어지고 파티가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나인성에 곡하는 소리가 진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축제의 뒤편길이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죽음과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 슬퍼하며 통곡할 수 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리의 제일 앞에 서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제자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을 선두로 해서 걷고 있는 행렬을 생명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나인성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린 것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인해 통곡했던 것입니다. 장례 행렬에는 제일 앞에 죽은 자의 영정 사진이 놓이게 됩니다. 즉 그 장례 행렬의 제일 앞에는 죽은 자가 선 것입니다. 이 행렬이 모든 죄된 인간이 걷게 되는 죽음의 행렬임을 보여줍니다.

그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고서는 그 관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음위에 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럴때 죽음의 행렬이 예수 앞에 멈춰선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걷던 인간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수하여 일으킨 것이 아니였습니다. 말씀으로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이 죽은 자에게 선포되자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그의 영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의 죽을 몸도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실때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밝히 증거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죽음의 행렬을 걷는 자가 그 안에서 행복을 더 경험하거나, 더 착하게 살게 되거나,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그 죽음의 행렬에서 빠져 나와 일어나 생명의 행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